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일 (제358회)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2017년 9월 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일

발 의 자 : 행정문화위원장

1. 주 문

- 2008. 9. 1. 충청도민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이하 ‘청주원외재판부’라고 함)는 사건수의 증가로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사, 행정 사건 담당)를 추가로 만들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2개 재판부로 운영해 왔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청주원외재판부가 담당 사건수가 증가하여 업무가중(부담)이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 충청북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및 청주 고등법원 설치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충청북도 도민은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관할이 대전고등법원 (본원)이었던 관계로 직접 대전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중 2008. 9. 1.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이하 ‘청주원외재판부’라고 함)가 설치되었음.

- 초기에는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배석2)의 1개 재판부로 운영되다가 사건수의 증가로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사, 행정사건 담당)를 추가로 만들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2개 재판부로 운영해 왔음.
- 그러나 법원장은 도단위 기관장으로서의 역할과 지방법원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만큼 재판에 전념할 시간과 여건이 되지 못함.
- 최근 3년간 청주원외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수가 증가하여 청주원외재판부의 업무가중(부담)이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하여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및 청주고등법원 설치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3. 이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 도민은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관할이 대전고등법원(본원)이었던 관계로 직접 대전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중 2008. 9. 1.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이하 ‘청주원외재판부’라고 함)가 설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배석2)의 1개 재판부로 운영되다가 사건수의 증가로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사, 행정사건 담당)를 추가로 만들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2개 재판부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장은 도단위 기관장으로서 외부활동을 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지방법원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업무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 전념할 여건과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이 같은 사정에도 청주원외재판부의 1인당 접수사건은 춘천, 전주와 함께 전국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법관 1인당 처리사건 역시 전국에서 전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1인당 접수 및 처리사건의 과다는 청주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가져오며, 이는 집중력 저하 및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져 부실재판(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우려를 낳게 되어 충청북도 도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원외재판부의 미제사건은 3년간 전국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제사건은 재판의 지연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충청북도 도민들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2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충북도민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대법원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관계기관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를 즉각 증설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향후 청주고등법원 설치에 적극 노력하라!

2017년 9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